

여성노인의 집단상담 경험을 통한 섹슈얼리티 인식변화에 관한 분석

백유미^{1*}

¹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상담심리학과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Elderly Women about Sexuality through their Group Counseling Experience

Yu-Mi Baek^{1*}

¹Professor, Dept. of Education Counseling and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yber,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노인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이를 위해 D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유배우자 여성 노인 8명을 선정하였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8회기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 연구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여성노인의 인식은 '현재 삶 만족', '화합을 위한 관계형성', '기쁨, 이완, 능동적 자기표현', '성적 관계'로 관찰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섹슈얼리티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성 인식, 적극적인 부부관계, 자존감 증진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섹슈얼리티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for discovering any change in the perception of elderly women about sexuality through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is the study selected eight elderly people who are female aged 65 or over living in D city and have a spouse who is able to have a consistent sex life. Then the study collected relevant data by offering eight sessions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and carried out an analysis with an approach to case studi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were changes in their perceptions about and current 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s for unity, pleasure-relaxation-active self-expression, sexual relations.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participants had a positive perception about a sex concept, namely sexuality and they came to think about the need for an increase of sexuality for rais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late years. These research results would be offered as basic data of research into sexuality which may be able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lives of elderly people, such as the positive recognition of sex, active sexual intercourses, and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Key Words : Elderly women, Sexuality life, Group counselling progra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섹슈얼리티(sexuality)는 19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생물학적 성적 차이 뿐 아니라 동시에 성적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며, 내적 현상과 외적 현상, 정신적 영역

과 물질적 세계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1]. 성이 단순히 성적 본능을 충족하는 성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의한 자기 표출이고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교류 혹은 관계 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적 욕구 충족은 몸짓·기호 등을 포함한 언어 등의 의사소통이 개입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Corresponding Author : Yu-Mi, Baek(Joongbu Univ.)

Tel: +82-10-6787-0804 email: edubym@joongbu.ac.kr

Received June 24, 2013

Revised (1st July 31, 2013, 2nd August 6, 2013)

Accepted August 7, 2013

[2]. 즉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신체적 생식기의 차이에 근거한 생물학적 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 정서적 성이 한 사람의 특성 속에 체계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며[3], 현대 사회에서는 친밀성과 애정에 기초한 관계가 더욱 중시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현재 11.7%에서 2040년에는 3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효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노인들은 신체적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 받는 대상이 아닌 부부 중심의 환경 속에서 인간본연의 욕구인 노인기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여전히 노인을 탈(脫) 성적 존재로서 단정하여 버리는 편견이 강하다[4]. 대부분의 경우 노인에게 성적 욕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거나 설명 노인의 성적 욕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여성 노인의 성은 가부장적인 한국문화에서 남성 위주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성생활로 인해 수동적인 성태도와 성행동을 취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고, 사회적 편견 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스스로도 성에 대한 잘못된 성지식을 가지고 성생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노인들의 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노인의 성에 대한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노인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는 노인 여성의 성생활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라디오 방송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미디어에서 바라본 노인의 섹슈얼리티 연구[5-6]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의 성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로 인식하고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3]을 적용시켜 여성노인의 성생활의 실제 상황을 탐색하여 노년기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섹슈얼리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생활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참여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이 어떤 양상으로 나

타나는지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은 시간과 장소의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속에서 프로그램 활동에서 경험한 개인의 사례들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Creswell, 1998).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D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가운데 사실혼 관계와 법률혼 관계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성생활의 가능성이 있는 유배우자 노인으로 다양한 표본추출(relational and variational sampling)이 가능하도록 연령과 지역, 학력, 직업, 가구형태 등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면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참여자 선정에 자율성을 두었다.

참여자수는 총 8명이었으며, 특성을 살펴보면 70세 미만인 3명, 70세 이상이 5명이었다. 학력은 초졸부터 고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건강상태는 보통 양호하였다. 가구형태별로 ‘부부형태’는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와 함께’가 2명, ‘기타’가 1명이었다.

[Table 1] General Situation of Participants and Frequency of Attendance

Name	General Situation	Participation Status	Cause of Absence
Go Eun Kim	65 years old, not healthy	Absent at session 4,5	Sick
MyeongRe Gwon	72 years old, normal health status	Late at session 1	Late due to family needs
Yeon Ji Ha	68 years old, healthy	Attend the whole sessions	-
Yeon Nyeon, Lee	71 years old, healthy	Attend the whole sessions	-
Hyeon Shim, Rho	72 years old, normal health status	Late at session 2	Treatment at hospital
Gap Sun Kim	70 years old, not healthy	Absent at session 3,5	Visit the country and hospital
Young Nyeon, Kim	66 years old, normal health status	Attend the whole sessions	-
Sun Hee, Jin	73 years old, not healthy	Absent at 4 sessions	Care for grandchild

2.3 프로그램 구성 내용 및 자료수집

본 프로그램은 여성 노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형식으로 노인복지관에서 1개월 동안 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Table 2] Main contents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sexuality of elderly women

Session/Date	Title	Goal	Preparations
1 (Sept. 17)	Self-introduction	·Building reliability ·Understanding the concept, purpose, and progress method of group counseling ·Self-understanding ·Setting up the goal of group activities	-Written oath -Magic pen -Crayons -Name tag
2 (Sept. 24)	Removing prejudice against sex in old age	·Understanding the sex of elderly men ·Understanding the sex of elderly women	-TV -VTF -Name tag
3 (Oct. 1)	Healthy body, healthy sex life	·Understanding the physiological sex concept ·Understanding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Perceiving healthy sex	-Printed material (Quiz) -Pen -Name tag
4 (Oct. 8)	Looking for a lost self	·Checking the sexual identity of women ·Perceiving newly the fixed idea about men/women	-A4 paper -Pen -Name tag
5 (Oct. 15)	Discover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appeals	·Discovering fair physical appeals as elderly women ·Strengthening positive bonding between a couple by discovering psychological appeals	-Printed material -Drawing paper -Crayons -Name tag
6 (Oct. 22)	Couple communication	·Checking oneself through an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type which aggravates a sexual relationship of a couple	-Name tag
7 (Oct. 29)	Forgiving	·Gender communication ·Improvement of emotional bonding	-Printed material -Pen -Name tag
8 (Nov. 5)	Delivering the mind	·Promotion of intimacy in a sexuality relationship ·Feeling self-fulfillment ·Improvement of self-esteem	-Letter paper, postage stamp -Assessment paper -Pen -Certificate of completion

총 8회기로 각 회기는 매주 1회기씩 2개월간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과 실제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줄 것과 함께 반구조화된 질문을 제시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분석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수집한 후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 답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회기에는 참여자들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과 실제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참가자간의 신뢰감 형성에 일차적 초점을 두었다. 활동은 별칭 짓기, 별칭 지은 이유 등 ‘자기 소개’ 하는 시간을 가지며 현재 부부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2회기에는 노인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을 탐색해보고, 자녀 세대와의 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화 <죽어도 좋아>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를 감상한 후에 참가자들은 남성 노인의 성과 여성 노인의 성에 대한 각각의 관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었다. 3회기에는 건강한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참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O,X 퀴즈를 통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성지식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았다. 4회기에는 여성에게 순종과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역할과 성역할, 성 정체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5회기에는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상대의 신체적인 매력과 심리적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 노인으로서 당당한 신체적, 심리적 매력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6회기에는 부부의 성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현상에 대해 생각해보고, 부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며 ‘역할극’을 통해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았다. 7회기는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상처 경험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으며, 8회기는 전체 회기에 참석하면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감정·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배우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참가자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방법은 사례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별 분석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중심주제들을 찾고, 이 주제를 근거로 다시 자료들을 재검토하면서 관련된 소주제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심개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례의 내용을 축약하고 주제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연구자의 통찰과 해석을 사용한다. 이때 연구자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주장을 곁들일 수 있다.

연구자는 녹음한 원자료들을 세 차례 반복하여 들으면서 자료에 대한 통찰을 갖고자 시도하였으며, 문서로 작성된 축어록들을 가지고 여러 번 정독하면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고 개념을 추출하였다. 이어서 추출된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다시 한 번 녹취록

을 검토하면서 핵심주제의 개념들을 찾아 나갔다. 이렇게 도출된 주제들은 2명의 슈퍼바이저와 토론을 하면서 수정, 보완하였으며, 재차 축어록을 정독하면서 수정된 주제들이 사례 자체를 잘 반영하는지 재검토하였다. 슈퍼바이저 2인은 교육심리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4년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 중 1인은 집단상담 이론과 실재를 15년 이상 현장에서 적용, 치료하며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검토와 이론적 삼각측정법과 기록들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진실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반응들을 비교한 후 수정하여 논문에 반영하였다.

3. 연구결과

3.1 ‘현재 삶 만족’의 섹슈얼리티

3.1.1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경험

본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의미 변화는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생에 대한 태도’ 등의 범주에 질적 자료를 근거해서 나타났다.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지나온 인생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워하는 감정과 인식이다. 김고은님은 프로그램 초기에 다른 참가자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수준이 낮아 소외감(1회기 축어록)을 느끼고, 건강문제로 프로그램에 참여가 미흡한 편(4, 5, 7회기 결석)이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자기표현도 소극적이고 삶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1회기 축어록, 2회기 경험보고서)을 했으나 프로그램 말기에 이르러 자신 삶에 대해 만족하는 등(8회기 편지글) 현재 삶의 의미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우리 젊은 시절부터 많이 고생했잖아요. 넉넉하지 못한 지금의 형편도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난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내 노인의 삶은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아요(8회기 편지글/ 김고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초기에는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부담감 등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나 프로그램 중반기 이후부터 참가자들은 남편의 성향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였다.

그러나 진순희님은 남편과의 갈등과 불안정한 경제사정, 자식들의 돈 요구 등 현재생활에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였다.

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남편은 예전이나 변한 거 없이 무뎡뎡하고 자기 말만 하기 바쁘구요. 이 나이가 됐어도 돈 걱정하고 살아야하고...자식들도 지들 살기에만 급급하니...지금 생활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해요(7회기 / 진순희)

3.1.2 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생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남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노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7회기 동안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배우자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권명례님은 남편이 항상 먼저 챙겨주고, 모든 집안일을 남편이 도맡아 하다시피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런 남편이 든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역할까지 빼앗긴다는 생각에 자식들 앞에서 서운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반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자신 스스로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고(6회기, 7회기 경험보고서), 앞으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8회기 편지)를 보였다.

오늘이 있기까지 자식들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힘이었지요. 당신 함께 즐겁게 이승을 후회 없이 잘 사시는 것이 나의 바람이에요. 여보, 잘 살고 건강하고 사랑합니다(8회기 편지글/ 권명례)

3.2 ‘화합을 위한 관계형성’의 섹슈얼리티

프로그램(6회기)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실제로 경험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성 개념은 기존 성 생활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회기를 거듭할수록 통합적인 의미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섹슈얼리티로 인식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화합을 통한 관계형성’에서는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이해를 통해 나를 점검해 보고 갈등이나 상처 경험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긍정적 부부관계로 변화하는 섹슈얼리티의 특성을 보였다.

먼저 하연지는 배우자와의 대화에 있어서 남편이 주도 들어주는 편이고 자신은 주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결국

서로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기법을 배우게 되어 ‘지금까지 남편과의 대화가 잘못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언년은 남편과의 대화할 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한 대화가 성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 솔직하게 성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다(2, 6회기 축어록). 그래서 서로 더 만족할만한 성생활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노현심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려심이 많은데(1회기 축어록, 3회기 경험보고서) 정작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않고 자꾸 서운한 부분만 떠오른다고 했다(6회기 축어록, 경험보고서, 8회기 축어록).

김갑순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남편과의 말다툼을 역할극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로 했다(6회기 축어록).

김갑순(남편역할) : 일한 건 당신인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나 먼저 샤워 할테니 밥 차려놔.

상담자(김갑순) : 참내... 당신이 오늘 발일 했어? 정말 나아말로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드네 그렇게 오자마자 자기만 알고 밥 차려 달라, 샤워 한다... 그렇게 알뜰게 말해야 속이 시원해?

김갑순(남편역할) : 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해?

상담자(김갑순 역할)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당신처럼 부인 배려 안하는 사람도 드물어...

김갑순(남편역할) : 나만한 사람 어디에도 없어. 내 힘 아니면 이렇게 정립동에서 버티고 평평 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내 맘을 좀 알아야지(6회기 축어록)

그러나 몇 명의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미움과 여진이 감정이 교차하며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고생을 시킨 남편에 대해 마음으로 용서를 못하고 일정부분 포기하는 심정을 갖기도 하였다.

3.3 ‘기쁨, 이완, 능동적 자기표현’의 섹슈얼리티

참여자들의 부부관계 속에서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험을 통해 기쁨과 이완을 경험하였고, 전반적으로 ‘소극적 표현’에서 ‘능동적 표현’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프로그램 참여 전 참여자들은 소극적이고, 상대에게 맞춰 자기를 이해하고, 부부관계에 대한 수동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의 부부관계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능동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되었고, 개인의 사적인 성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개방을 하니 모임에 대해 정이 생기고, 참가자들끼리 많이 친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참가자들이 섹슈얼리티에 대해 지금까지 살면서 공론화하여 함께 이야기를 터놓고 할 기회가 없었고, 특히나 부부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점은 배우자와 젊은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불만족스러움과 삶의 힘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1, 3, 5회기 축어록, 경험보고서).

따라서 지금까지는 부부생활에서의 자기 이해가 과거 지향적이었다면 이제는 현재 만족스런 자세로 부부생활에서의 자기이해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을 보여준다(6, 7, 8회 축어록, 경험보고서) 김갑순님은 복지관 회장으로 프로그램 초기에는 회의적인 자세였으나 프로그램 중반 이후부터 남편에 대한 친밀감, 관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쁨, 행복감, 관계의 지속에 대한 헌신 등의 내용을 나타냈다.

프로그램 말기에는 남편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고 서로에게 만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8회기 축어록, 8회기 편지).

진작 이런 프로그램을 알았다라면 남편과 그렇게 많이 싸우지도 않고 자꾸 치근대는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았을 텐데...그렇게 버텼던 세월이... 내가 헛살았지...싶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애들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스킨십도 많이 늘었어요. 손도 슬쩍슬쩍 잡아보고... 애교도 한 번씩 부리고 그래.(8회기 축어록, 김갑순)

3.4 ‘성적 관계’의 섹슈얼리티

3.4.1 잘못된 또는 올바른 성지식에 관한 경험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이성애에 대한 느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몸의 변화와 관계없이 마음은 여전히 젊은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

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앞으로의 성생활에 확신이 없고,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이 주책 맞게 성생활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많았다.’, ‘안하는 게 오히려 편하고 좋다.’라고 응답하는 등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남편과의 성 불평등적인 상호작용 속에 만족스러운 성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동시에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 갈등 때문에 신체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2, 3회기 축어록, 경험보고서).

다음은 참가자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지식을 알고,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난 말이야, 남자들 특히 심장병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섹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노인들이 자꾸 섹스를 하면 정력을 소진해서 일찍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성지식에 대해 체크한 게 많이 틀렸더라고. 이번 기회에 내가 성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고쳐야 할 것 같아(3회기 축어록, 건강한 성생활 O, X 유인물, 노현삼).

나이가 들에 따라서 성 생활의 질은 남자, 여자 모두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이것도 내가 잘 못 생각한 거였어. 노인들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언년님의 경험을 듣고도 알게 됐지(3회기 축어록, 하연지)

노인들의 성은 젊은이들의 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 생활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남성의 발기와 여성의 질 윤활이 성 흥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성지식을 보여주었다(3회기 축어록, 경험보고서, 건강한 성생활 O,X 유인물).

이번 회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대하여 바로 잡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언년의 경우도 성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대체로 노인들은 성 생활을 기능적으로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체적인 노화에 따라 자신감도 저하되어 있는 것도 관찰되었다(2, 3회기 축어록, 경험보고서).

3.4.2 보수적 또는 허용적 성태도의 경험

프로그램 초기에 여성노인들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강하고, 성태도는 매우 보수적이었다(2회기

축어록, 경험보고서). 그러나 프로그램 중반 이후부터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3, 4, 5회기 축어록, 경험보고서, 8회기 편지글). 배우자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른 성지식을 갖게 되면서 참가자들은 허용적인 성태도를 보였다.

성욕구는 여전히 있는 거 같은데.....남들처럼 막 아프거나 그렇지도 않고.....그렇다고 내가 먼저 남편한테 하자고 말하진 않았어. 옛날부터 그랬으니까.....그냥 남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어. 그런데 나도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여자가 먼저 하자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이제는 남편한테 아침에 뽀뽀도 먼저하고, 안아주기도 해. 그게 좋은 거더라구...(2, 7회기 축어록, 김고은)

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노인들을 보면 웬 주책인가 했는데...한마디로 체면 깎는 짓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프로그램을 참여하다보니깐...나도 성에 대해 관심이 원래 있었구나 알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하고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게 돼서 좋을 것 같아(4, 6회기 축어록, 경험보고서, 김갑순).

프로그램 초기에는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자니까 해야 하는 역할, 여자니까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것, 여자니까 성에 대해 조신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기 이후부터는 성공적인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실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배우자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성행동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실제 부부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4.3 소극적 또는 적극적 성행동의 경험

난생 처음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고 성 관계만이 남편을 만족시켜 줄 꺼라는 편견을 버리게 되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모든 참가자 앞에서 다짐해 보는 바요...(7회기 축어록, 김영년).

우리는 성행위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실제로 남편에게 성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준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부터는 내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여기 저기 만져주고...애무해 주니까 서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구...성행동도 습관처럼 해야 낫설지 않은 거 같아요...(6, 7회기 축어록, 경험보고서, 노현심).

프로그램 참여 전 참여자들은 성에 대한 섹슈얼리티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하여 그들의 살아여 부정적이고, 성에 대해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체면을 깎는 일이라 생각하고, 신앙심이 강한 참여자는 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체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 회기에 불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극적인 성행동은 과거에 남편과의 생활에서 얼마나 친밀감을 형성했느냐에 따라 현재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자상’하고 ‘대등한’ 남성과 여성간의 인격적 관계를 희망하고 있었고, 따라서 성적관계의 의미로서의 섹슈얼리티를 최소화 하고 다른 의미 있는 영역을 찾아냄으로써 좀 더 통합적인 자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인식하는 섹슈얼리티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하여 그들의 경험을 통해 섹슈얼리티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여성 노인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첫째, ‘현재 삶 만족’의 섹슈얼리티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고 생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과거에 배우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젊은 시절의 삶이 경제적으로 지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경험 등 자기만족이 낮았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중반 이후부터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한 노인이 되기 위해 삶을 수용하고 자기만족을 상승시키게 되었다. 8회기 편지글을 쓰는 시간에는 배우자와의 변화된 친밀한 부부관계가 드러나고 모든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랑, 신뢰, 돌봄, 가치감 보장이 제공될 때 강화된다고 한 연구와 일치한다[7]. 따라서 노인 부부관

계에서 섹슈얼리티는 부부간의 긴밀한 정서적 교류이며 더 나아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노인에게 섹슈얼리티는 중요한 화두이며,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화합을 위한 관계형성’의 섹슈얼리티로 인식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변화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소통이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임을 자각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역할극을 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실제로 익히게 되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스러움과 배우자와의 대화소통의 어려움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배우자에 대한 공감, 용서하기, 이해하기 등의 내용을 경험하며 부부간의 원활한 대화소통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능력은 부부의 관계향상과 결혼만족도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8]. 따라서 노인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과거의 용서해야 할 부분 즉 억눌러 있는 감정을 잘 풀어내어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참여자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기쁨, 이완, 능동적 자기표현’으로서의 섹슈얼리티로 부부관계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전 참여자들은 소극적이고, 상대방에 맞춰 자기를 이해하고, 부부관계에 대한 수동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부부관계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반기 이후 참여자들은 부부관계를 능동적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사적인 성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간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노년기 부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부인과 남편에 대해 고착된 생각을 바꾸고 서로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노인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과거 고정된 성역할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9].

넷째, ‘성적 관계’의 섹슈얼리티로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자신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성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체적 성(sex)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행위에 부정적 시각과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여성 노인들은 생애에서 경험된 성 욕구는 남성의 성적욕구를 실현하는 행위에 어쩔 수 없는 대응이며, 출산을 위한 행위로 느껴

질 뿐이며,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이 없었고, 자신의 성 욕 구에도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10].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후반기에는 잘못된 성지식을 바로 인식하게 되었고, 부부관계에서 있어서도 개방적인 성태 도와 적극적인 성행동으로 조금씩 변화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일회적 성교육이 아닌 당당한 노인의 성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부간의 긴밀한 정서적 교류를 통한 성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섹슈얼리티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만족스런 부부관계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질적 자료의 분석은 양적 연구로 파악할 수 없었던 참여자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의미의 세계 즉 인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변화과정을 행동과 말, 편지와 나눔으로 보고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의 초기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성생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프로그램 종결될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부부관계 향상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배우자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남성 노인들을 포함한 연구 대상자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성 노인의 섹슈얼리티의 의미와 범위를 적용하여 다양한 연구대상자를 통한 학문적이고 실천적 논의와 검증이 후속 연구에서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Foucault, M.(author), Lee GH.(translator).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2: The Use of Pleasure*, Seoul: Nanam Publishers, 2000.
- [2] J. H. Jo, Identity "Crisis" in Gender Politics, *Women's Studies Review*, 23(2). pp. 3-37, 2006.
- [3] Y. M. Baek, "The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Sexuality Enhancement in the Ag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Korea, 2009.
- [4] M. S. Kweon,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2002.
- [5] Y. M. Baek., J. C. Kim, The Development of person-center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Sexuality Life Enhancement in the Elderly Wome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7, pp. 137-160. 2012.

- [6] H. W. Jung, H. M. Kim. Sexuality of the Seniors as Seen by the Media: Centered around KBS 3 Radio's 'Start a Great Life'.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2(3), pp. 287-304. 2012.
- [7] Y. T. Kim, C. Y. Yun, C. H. Jang. Analyz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scales and factors for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2, pp. 313-331. 2003.
- [8] M. K. Jung, J. H. Kim, A Case Study o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Elderly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28(3), pp.603-618, 2008.
- [9] D. A. k Hong,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Needs of Education for Elder Couples - Centered the Mid-Later Life,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4(6), pp.883-898, 2005.
- [10] Y. S. Kim. Korean Old Women's Sexuality through the Method of Life Hlstory. *Women Health. Women's Health*, 6(2), pp. 121-146. 2005.

백 유 미(Yu-Mi, Baek)

[정회원]



- 2011년 9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상담심리학과 재직중
- 2013년 1월 ~ 현재 : 한국학술상담학회 이사
- 2013년 1월 ~ 현재 : 세종시 교육청 Wee-center 자문위원

<관심분야>

집단상담, 가족상담, 성상담